

## 기록, 조화와 우애: “서울정신(Spirit of Seoul)”을 지속하다

2016년 9월 5~10일 서울, 대한민국에서 개최된 제20회 세계기록총회에서 글로벌 기록 커뮤니티를 대표한 114개국 2,049명 기록인들은, 최근 20년간 아키비스트들의 업무환경이 급속히 그리고 크게 바뀌었다는 점을 인식한다.

기술로 인해 기록의 양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였고, 개인, 가족, 공공기관, 자원봉사기구, 그리고 민간기업 등에서는 이런 기록들을 매우 다양한 포맷으로 생산하고 있다. 이 기록들의 책임있는 관리를 위해서는 사생활 보호에 대한 권리 그리고 정보공개에 대한 권리의 알맞은 균형을 찾아야 한다. 기록에 포함된 정보는 잠재적으로는 굉장한 자산이 될 수도 있지만, 전반적인 사회의 이익을 위해서는 현명하게 다루질 필요가 있다.

이전까지 기록은 '낙후된 분야'로 여겨졌다. 사회의 작은 일부분만을 위한 것이며, 그들만의 전문적인 업무 절차와 난해한 용어를 쓰는 분야였다. 이 모든 것이 바뀐 계기는, 창의적인 온라인 서비스의 빠른 성장 덕분에 수많은 유저들이 기록 관리기관을 직접 찾아갈 필요 없이 정보를 찾아볼 수 있게 되었다는 점 때문이다. 오늘의 일반 국민들은 이전 세대들이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아카이브에 저장되어 있는 기록에 접근(access)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빠른 기술의 성장으로 '뉴 디지털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이번 총회 참가자들은 최근 국제기구에서 통과된 각종 정책들의 중요한 영향을 잊지 않고 의식 해야한다.

### **유엔 A/RES/70/1 결의안: “Transforming our world: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에 제시된 유엔 지속가능한 개발목표:**

위 결의안 항목 중 목표 16은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평화적이며 포괄적인 사회를 추구하는 것이다. 모두에게 법적으로 접근권한을 제공하여 효율적이며, 책임 있고, 포괄적인 기관들을 각 계층에서 구축하는 것이다. 더욱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다음과 같은 세부목표들이 있다: 주로 모든 종류의 뇌물 수수 및 부패 감소; 효과적이고, 책임감 있으며, 투명한 각계각층의 기관을 구축하는 것; 그리고 국내법 및 국제규정에 따른 정보의 공개화 및 기본권리 확보.

### **유네스코 Recommendation on Documentary Heritage (2015년 11월):**

본 문서에서는 회원국들이 그 나라의 기록관리 기관에서 연구, 자문, 국제표준에 따라 선별, 수집, 보존 정책을 수립하는 것을 지원하는 것을 권장한다. 문서, 팜, 컬렉션은 오랜 시간이 지나도 보존과 접근을 보장할 수 있고 목록작성 및 메타데이터를 포함한 검색가능한 방법으로 관리되어야 한다.(1.1) 본 문서는 디지털 문서의 경우 조치와 개입이 생산과 수집 시점 전부터 행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명시한다.(2.2)

### **유네스코 Universal Declaration on Archives (2011년 11월):**

본 문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기록은 권위 있는 정보의 원천이며, 책임 있고 투명한 행정업무를 보장한다; 기록은 개인과 사회의 기억을 지키고 이에 기여하여, 모든 사회의 발전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가진다. 기록의 공개는 인류 지식의 가치를 높이며, 민주화를 지지하고 시민들의 권리와 삶의 질을 보호한다.'

## 열린 정부 파트너십 (Open Government Partnership) 2011년:

이는 다자간의 프로젝트로서, 현재 69개의 국가, NGO 및 민간분야 및 대학교육 대표단체 등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국제사회에서 OGP는, 시민협약 및 참여를 통해 정부가 개방되고 투명하게 운영되는 원칙을 지지하며, 공공청렴과 부패퇴치를 위한 노력에 기여한다. 신기술 접근을 증가하여, 민주화를 키우고, 혁신과 발전을 추구한다. OGP의 설립 이후, 회원국들은 더욱 열리고 책임감 있는 정부 추구를 위해 2,000개 이상의 약속을 하였다.

모범 정책을 공유할 수 있는 포럼으로서, OGP는 세계 각국 리더들이 함께 모여, 서로를 자극하고 커뮤니티를 확대할 수 있는 특별한 프로젝트이다.

## 권고사항

서울총회 기간 동안 기록관리 전문가들은 '조화와 우애' 정신에 입각하여 그들의 전문적인 지식을 최대한으로 공유하고, 이를 통해 디지털시대의 현대사회에 의미 있는 기여를 하겠다는 각오를 다시 한 번 다졌다. 위에 발표된 문서들이 제시하는 도전과 기회에 비추어 봤을 때, 총회 참여자들은 이번 주 내내 보여줬던 협력 정신이 다가올 미래에 기록관리 전문직에게 지속적으로 장려되고 유지될 수 있도록 세계기록협회(ICA)가 주도하길 바란다. 구체적으로 참여자들은 ICA가 향후 4년 동안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권고한다.

## 요구사항

### 정보자원으로서의 기록 인식

1. 기록은 유일하고 대체할 수 없는 정보의 자원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국제사회에 있어 기록의 존재를 더욱 빛나게 하도록 지식 재산, 열린 정부, 정보 공개 및 데이터 보호와 같은 주제들에 대한 정확한 입장표명을 밝히고, 기관 내외 관계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한다.

### 디지털 기록관리에 대한 정책 개발

2. 글로벌 ICA 네트워크에 존재하는 전문성을 활용하여 표준 개발 및 모범 실무 등을 통해 기록관리 전문가들이 디지털 보존 분야에 탄탄한 기여를 할 수 있도록 돕는다. 예를 들자면, PERSIST 프로젝트와 같은 활동이나, 디지털화 과정이 제공하는 기록 접근 기회 등을 책임감 있게 활용하는 방안 등을 개발한다.
3. ICA 회원 간 중립적인 환경 및 상호존중을 기반으로 기록유산에 대해 건설적인 대화를 장려하고, 이러한 기록유산이 모두에게 접근이 용이한 제도를 개발한다.

### 지속가능한 재정(Sustainable Financing) 및 인력 개발

4. 새로운 디지털 기반과 기술에 맞춘 적합한 인프라 구축 및 유지관리를 위한 투자에 대한 필요성을 국제사회에 지속적으로 주창하고, 디지털 기록관리를 위한 재정확보 방안을 모색한다.

5. 프로그램위원회(PCOM)는 이러닝 도구를 활용하여 전 세계에 있는 기록관리전문가를 위한 더 나은 교육 훈련을 제공하며, ICA의 언어적 그리고 문화적 다양성 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기록관리 문화와 실무를 인정한다.
6. 프로그램위원회(PCOM)는 ICA 분과에 의해 개발된 다양한 교육훈련 프로젝트를 프로그램 우선순위 및 커뮤니티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조정한다.

## 국제기구 기록관리 정책 준수

7. 국가기록원포럼(FAN) 및 ICA 지역지부들을 통해, 모든 회원국이 UNESCO Recommendation on Documentary Heritage를 충분히 고려하길 권장하고, 대표적인 세계기록유산 프로그램에 참여하길 권장한다.
8. 마찬가지로, Open Government Partnership 참여를 격려하며, 효과적인 기록 관리를 기반으로 국가 실행 계획(national action plan)을 개발하길 권장한다.
9. ICA의 현대화를 지속하여, 기술발전의 혜택을 충분히 즐기는 동시에, 언어 및 문화 다양성도 키우고, 소셜미디어(SNS)를 활용하여 새로운 회원의 참여를 유도한다.

## 국제적 협력의 강화

10. 디지털 시대가 제공하는 기회들을 개도국에서 활동하는 동료들과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노력한다. 예를 들면, 아카이브 국제발전 기금(FIDA) 또는 아프리카 프로그램 등을 통해 함께한다.
11. 현재 IFLA, ICOM, 그리고 ICOMOS 등과 같은 NGO들과 맺은 관계들을 더욱 돈독히 하여, 공동 관심 분야에서 협동 프로젝트들을 발전시킨다.

이번 총회 참가자들은 이러한 권고들이 쉽게 잊혀지지 않기를 원한다. 그들은 향후 4년 간 ICA 리더들의 활동방향에 대해 발언권이 있어야 하고, 이 권고들의 실행여부를 다음 총회인 2020년 세계기록총회에서 보고 받을 수 있길 기대한다.